

2003년 부대 집행부에서 온 인사말

이제는 제국의 향기 공연 기획 공연

▶ 사명서인 향기작

# 향파

향기작의 향수향 유년-장막의 노래...

향기작 향수향 기획공연  
기후변화 향수향 특별공연



2003. 7. 17 (목) ▶ 27 (일) 자유비다소극장

공연 : 7시30분 / 목, 일 : 3시, 6시

문의  
예약

공연 후원 02-559-5854  
자유비다소극장 022-2572

공연 : 1.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후원 : 1.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향기작의 향수향 기획공연

이제는 제국 이젠



劇團 아센 제 6회 정기 공연

♥사랑티켓 참가작

# 양파

한 가족이 간직한 슬픈 사랑의 노래...

관객의 감성을 쥐어흔드는  
가족애를 향한 역설적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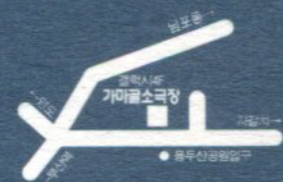
2002. 10. 16(수) ▶ 27(일) 가마골소극장

평일 : 7시30분 / 토, 일 : 4시, 7시

일반, 대학생 12,000원 / 중고생 8,000원

문의  
예약

극단 아센 469-6484  
가마골소극장 245-0042



협찬 : 부산은행, 전국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 21C문화재단, 도시미관연구소  
예매처: 부산은행전지점 문우당서점/영광도서/동보서적/면학도서/부산도서/항학서점/남포문고/동아대 학생생활연구소



劇團 아센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96-5(6/1)  
전화 : (051)469-6484/9016)555-6484  
home page : <http://www.acen.wo.to>  
E-mail : [acen2000@hanmail.net](mailto:acen2000@hanmail.net)



# 작가의 글



## 작가 김수미

한국 연극협회 극작 분과 회원  
 한국 희곡 작가 협회 회원  
 1997년 '부러진 날개로 날다'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1998년 '귀여운 장난' - 창작마을 희곡상  
 1999년 '문' - 옥랑 희곡상  
 2000년 '양파' - 한국 희곡 신인 문학상

껍질을 벗길수록 눈물이 난다.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대 질문을 던졌더니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묵도 답이라는 걸 알았다면 쓸쓸함이 적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질문이 어려웠나 싶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길래 들려주는데 듣는 이가 허공입니다.

사랑한다고  
 넘치게 사랑하다고 했더니  
 나의 사랑은 그에게 상처랍니다.

아프다길래 안아주려고 했더니  
 칼날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철철 흐릅니다.  
 이 칼이 당신겁니까? 내 겁니까?

껍질을 벗길수록 눈물이 납니다.  
 다행입니다.  
 눈물이라도 흘린덕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낮선 경험은 경험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도 잊은채 살아온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경이로운 경험을 맛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기대가 우리를 예술로... 예술로 끝없이 유혹합니다.  
 여기 한편의 연극이 낮설은 누군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멋진 도시에서 멋진 분들과 공연하게 됨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 연출의 글



## 연출 손병태

경성대학교 및 대학원 연극영화과 졸업  
 런던대학교 연기자 과정 졸업  
 런던대학교 대학원 연출전공 졸업  
 현 부산예술문화대학 연극과 전임강사 / 연극연출가  
 주요연출 작 / '수업'(이오네스코 작), '무엇이 될꼬 하니'(박우춘 작)  
 '날 보러와요'(김광림 작)외 다수

시대가 변할수록 사회는 점점 삭막해지고 특히 가족마저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있다. 언젠가 대학생 아들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흥기로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우리 주위에 불행한 가족사가 어디 이 뿐이라!!

가정 형편상 아이들을 버리는 무정한 아버지, 남편의 외도로 집나간 어머니, 아내의 불륜에 눈물 흘리는 남편과 버려진 아이들의 무분별한 범죄행위. 더 이상 가족은 가족이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오늘날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까?

벗기면 벗길수록 눈물만 나게 하는 양파. 과거의 감추어진 진실을 찾아 열 두껍질을 벗겨보지만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양파>는 가족 구성원간의 뿌리깊은 불신과 증오, 대화의 단절 속에 지속되어 온 의심과 편애, 그에 따른 폭력과 파괴, 죽음에 이르는 가족사의 비극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지금 우리 가족의 문제를 짚어보고 잃어버린 진정한 가족애를 돌이켜 보고자 연출한 이 슬픈 사랑의 노래는 우리를 향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결국 가족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동반자임을 깨닫게 해 주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각 연기자들에게 극도의 절제된 동선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음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소외와 불신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각자의 방문에 비치는 조명의 색깔과 암전 없는 장면 구성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객관적인 관극을 통해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족 모습을 돌이켜보고 고통뿐인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차분히 생각해 보는 자그마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 6회 정기 공연의 연출을 서슴없이 맡겨준 영원한 연극 동지인 극단 '아센'의 호민 대표님과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유독 애착을 가진 <양파>의 상연을 허락해 주신 작가 김수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덧붙여 절정의 연기력을 선보이며 최선을 다한 구민주씨와 경선, 준영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작품소개 및 줄거리

## 아버지

자기 것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으로 가족을 지탱해 나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는 과거 어머니의 어쩔 수 없었던 한번의 외도와 자신을 향한 무관심에 반발하며 가정 폭력을 일삼는다.

## 어머니

아이 때문에 원치 않은 결혼을 했던 어머니는 나름대로 가족의 형태를 지키기위해 아버지의 폭력에 순응하며 때로는 얼음같은 차가운 애증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다. 순간순간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 딸

어머니의 사랑을 아들에게 빼앗겼다고 여기며 오히려 폭력적인 아버지를 동정한다. 우연히 목격한 아버지의 불륜을 현실과 타협하듯 묵인하는 조건으로 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아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들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항하며 어머니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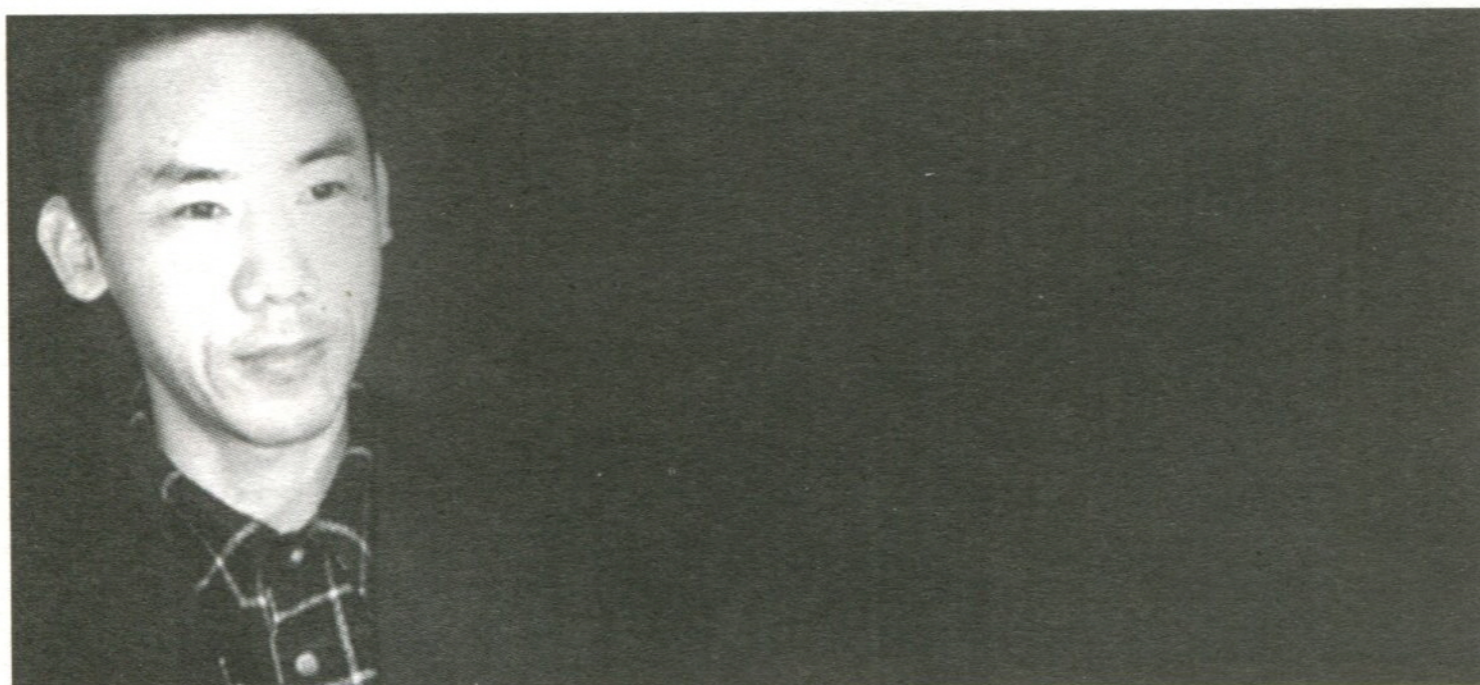
이들은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이란 단어로 포장되어 있다. 가족이란 형태로 20년 넘게 지탱해온 미움과 증오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한 꺼풀 한 꺼풀 벗겨 나가면서 정작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보살핌과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늦은 밤 거실 바닥에서 악몽을 꾸던 아들을 어머니가 깨우자 뒤따라 나온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감싼다며 어머니를 나무란다. 아들이 방에 들어간 후 아버지는 야만적으로 어머니를 탐하려 하고 어머니는 발부동치며 이것을 피하려 할 때 딸이 거실로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형태를 지니면서도 서로를 불신한다. 이제 양파껍질이 벗겨지듯 극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각자의 아픔이 드러나며 20년 넘게 끓아온 그들의 상처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사냥에 쓰이는 총기로 상징되는 아버지, 외롭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과거속에 살아가는 난초 같은 식물적인 어머니,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고자 집착하는 딸과 삶의 희망이 없는 우유부단한 아들. 이들에게 가족이 존재해야할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 Cast



## 아버지 役 / 호 민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카톨릭 대학교 드라마 강사  
전 부산 시립극단 단원  
현 극단 아센 대표

### 주요 출연 작 /

'서퐁짜리 오페라'(이오네스코 작),  
'돌아서서 떠나라'(이민희 작),  
'철부지들'(톰 존스 작) 외 다수 작품 연기 및 연출

## 딸 役 / 김 경 선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주요 출연 작 /

'뮤지컬 자갈치'(이현대 작),  
'허탕'(장진 작),  
'안티고네'(장아누이 작) 외 다수 작품 출연



## 아들 役 / 김 준 영

### 주요 출연 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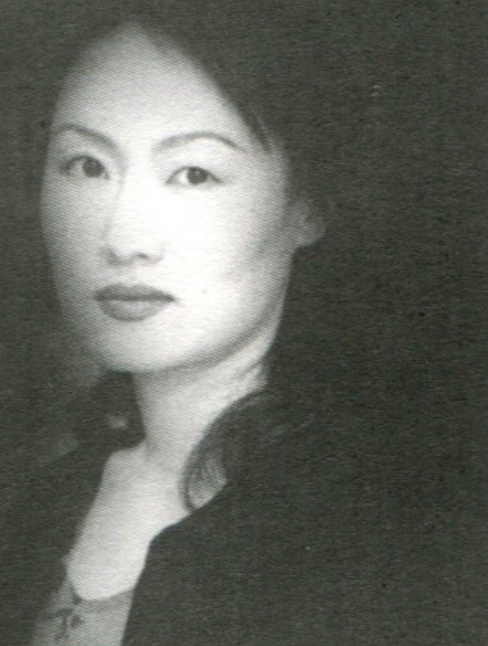
'뮤지컬 자갈치'(이현대 작),  
'매장된 아이들'(샘 세퍼드 작) 외 다수 작품 출연

## 어머니 役 / 구 민 주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제16회 부산 연극제 최우수 여자 연기상 수상  
제18회 부산 연극제 우수 연기상 수상  
현 극단 아센 부대표 & 연기프로그램머

### 주요 출연 작 /

'날 보러와요'(김광림 작),  
'불 좀 꺼주세요'(이만희 작),  
'적과의 이중주', '꿈의 정원',  
'묘지 클럽' 외 다수 작품 출연





# Staff



연출 / 손 병 태



기획 / 서 용 우



무대감독 / 김 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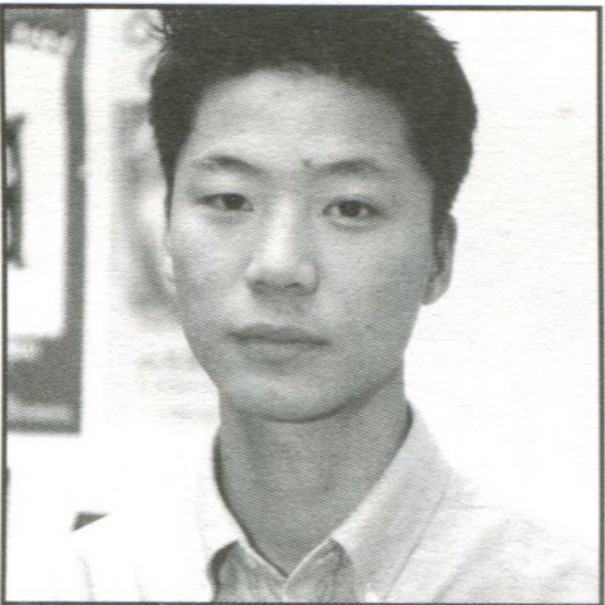
조명디자인 / 이 찬 우



조연출 / 황 정 옥



안무 / 오 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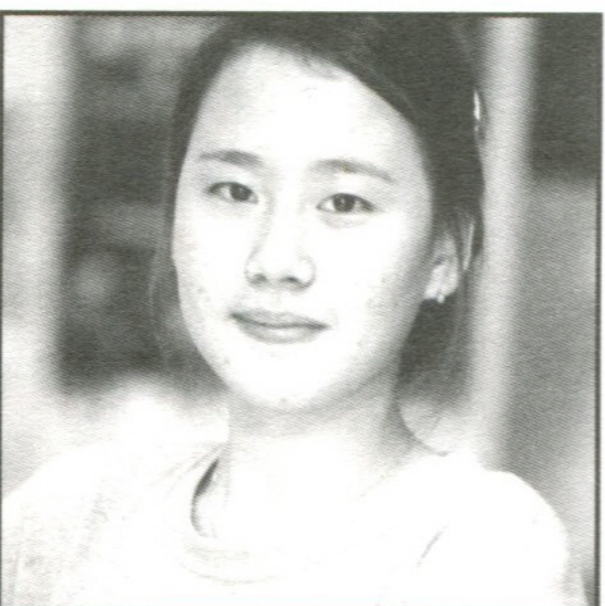
무대디자인 / 황 성 하



분장 / 최 수 희



조명OP / 김 선 미



음향 / 김 민 정



진행 / 이 진 희



소품 / 신 중 섭

무대장치 / 최 원 석   무대장치 / 조 재 익   의상 / 박 선 희